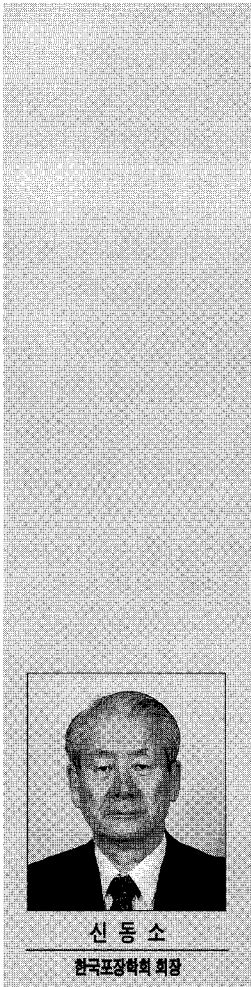




국내 포장 교육 현황 및 과제

Status and Problem of Packaging Education in Korea



신 동 소
한국포장학회 회장

인류 역사와 함께 해 온 포장은 현대 사회에 들어서도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적 규모를 먼저 살펴보면 매년 GDP의 약 2~3%를 점하고 있어 양적으로 국가 기간산업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으나 질적으로는 그 발전속도가 더딘 편이다.

그 주된 이유가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교육제도의 뒷받침이 빈약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포장교육의 현실을 살펴보자.

1987년도에 상공부(현 산업자원부) 주관의 「포장정책기술협의회」에서 포장관련업계, 교육계, 연구소 등 관련 전문가들은 포장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하였다. 같은 해에 한국디자인포장센터(현 한국디자인진흥원)는 「포장교육제도 연구결과 보고서」를 발간하여 4년제 대학에 포장학과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각계에서도 포장전문인력 양성의 중요성과 당위성에 대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다.

1988년, 당시 상공부는 문교부(현 교육인적자원부)와 4년제 대학에 포장학과 설치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나 일본의 아직 없다는 단순한 논리로 무산된 바 있다.

1993년 전문대학에 최초로 포장과가 설치된 후 현재까지 4개의 대학과 1970년부터 실시해 온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단기과정인 포장관리사 교육을 통해 연간 약 150명 정도의 전문 인력이 배출되고 있으며 이제 막 시작한 한국포장협회 주관의 포장기술관리사 교육으로 더 많은 전문 기술인이 양성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관련 자격증 시험으로는 현재 포장산업기사, 포장기사와 포장기술사 시험이 연간 1회 시행되고 있으나 이들 자격증에 대한 업체의 배려나 지원이 거의 없어 그나마 소

수 배출되고 있는 전문 인력이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비슷한 아시아권에 속해 있는 중국, 태국, 인도의 경우 1980년부터 정부차원에서 대대적인 포장진흥정책을 펴 나가고 있다.

특히, 중국은 1980년 초부터 포장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전국 100여개 대학에 포장학과 및 관련 과목을 개설하였고 정부와 산업체의 공동노력으로 질적, 양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참고로, 일본은 포장기술이 세계최고 수준에 있으나 교육 창구가 일본포장기술협회(JPI)로 단일화 되어 있고 1992년에 설립된 일본포장학회를 정점으로 포장학과 설립에 주력하여 이미 몇 개 대학교에 포장공학과가 설립되어 있다.

필자는 1996년 경민대학을 필두로 강릉대학교, 목포대학교, 경기대학교, 동국대학교, 건국대학교, 경상대학교, 연세대학교와 교육인적자원부 등을 직접 방문하여 국내 포장산업의 발전을 위한 포장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였으나 '수도권 학생정원 동결정책'과 해당 대학의 복잡한 학내상황이 맞물려 학과 설립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런데 최근 상기 대학외에도 최근 몇몇 대학에서 포장학과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는 등 그간 애써온 포장교육에 대한 인식전환이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제, 앞으로의 포장교육의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자.

포장과 관련된 산업적 분야가 워낙 광범위하다보니 이를 뒷받침하는 포장학 관련 학문도 다양하다. 포장재료학, 포장기법학, 포장디자인학 등을 비롯하여, 유통학, 물류학 및 경영학 등이 연결되는 학제(學際) 또는 업제(業際)간 학문이라고 말해지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학문영역의 조합 속에서 포장만의 독특한 고유영역을 구축하고 이것을 중심으로 교육해 나가는 것이 포장교육의 핵심이라고 여겨진다.

다음으로, 다가오는 21세기의 포장은 산업발전과 생활문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식정보화 및 환경친화적인 흐름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육성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이러한 포장의 목적과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첨단기술개발 분야의 교육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창의적인 기술개발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우리 나름대로의 독창적인 커리큘럼 개발과 이를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그동안 포장산업 발전의 커다란 장애요인이 바로 이러한 전문 인력의 부족에 있었다.

우리나라 포장교육은 이제 걸음마 단계를 지나 성장기에 들어섰다고 말할 수 있다.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포장산업도 날로 전문화 되어가고 있으며 전문대학 수준의 포장과가 설립되어 있고 계속해서 4년제 대학에 포장학과가 설립된다면 포장교육을 통한 포장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업계와 학계의 노력을 통해 곧 우리나라에서도 우수한 포장인력이 양성될 것임을 기대해마지 않는다. □